

아버지라는 이름의 영웅

아들 릭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디키가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자녀의 아버지로 살다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세 아이가 다 하나같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 은혜를 중학교 때 흡스쿨링으로 교육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두달이 서둘러서 그런지, 중학교에 올라가니 세계사 등 외우는 과목을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연구실에 데리고 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르쳤습니다. 피곤 할만도 한데 이제 좀 이해가 되다며, 팔팔팔팔 뛰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모습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남의 자녀는 열심히 가르치면서, 왜

내 아이는 가르치지 않았는가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내 품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시간을 쓰겠다고 결심을 하고 흡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 전 과목을 가르칠 엄두가 나지 않아 동네 어귀에 흡스쿨링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진화가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세계관동여회를 삼키는 동료 교수 37명이 함께 흡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둘째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어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꽤나 자녀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디키 호이트(Dick Hoyt)의 아들 사랑 이야기를 U-TUBE를 통해 보고 저는 아무 짓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키 호이트는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해 식물인간처럼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아들 릭(Rick)을 복지기관을 맡기라는 병원의 조언을 거절하고 손수 키웠습니다. 15살 되던 해에 달리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휠체어에서 "아버지, 달리면서 나는 평생 처음 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 말에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 되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그 후에 철인3종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수영을 배워,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워 허리에 묶고 수영을 했습니다. 6살 이후에 자전거를 탄 적도 없던 아버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디키 호이트는 아들 릭을 데리고, 철인3종 경기(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를 6번이나 완주했고, 단축3종 경기는 무려 206회, 그리고 마라톤 폴 코스를 64회나 완주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 연속 완주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의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릭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디키가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디키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하여서 은총이 아빠 박지훈 씨도 철인3종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한국의 디키 호이트라고 불리는 박지훈 씨가 은총이 같은 아이를 위한 복지관 건립을 위해 달린다는 것이 (시사매거진 2580)에 소개되고, <우리 은총>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지연의 퍼플 INSID>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헌신과 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호의 어머니에 이어서 이번 호는 '아버지'를 주제로 꾸몄습니다. 가정의 달에 아버지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합니다. 작년 가을에 나온 <Courageous(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목사가 세운 파이어 프루프 영화사가 만든 것인데, 재미와 감동이 어울린 영화입니다. 한 작도 시의 4명의 경찰 가정을 소재로 하는데, 딸 에이미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아버지의 중요함을 깨달은 한 경찰 아버지가 미국내 아버지 학교를 추구하는 영화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을 진수하고, 보호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진한 감동과 흥까지 더해져서 은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영화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6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Ph.D. 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 현재 경제지도학회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회 공동 발행위원장.